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⑬

규원사화

(지난호에 이어)
高句麗之亡, 徙居營州, 及看蓋榮之亂, 與乞乞比力, 領家東遷, 麗輾之衆, 響應而起, 蓋其舊國將, 如百濟之黑齒常之, 明矣; 其麾下, 想多舊國貴臣, 能通古今者.(이하생략)

《신당서·발해전》에 따르면 [고려의 옛 땅을 서경으로 삼아 압록부(鴨 府)로 이름하고 신(神)·환(桓)·풍(豐)·정(正)의 4주를 거느리게 하였으니라 하였으며, 《요사·리지》에는 [녹주(州)의 압록군(鴨 軍)은 절도(節度)이다. 본래 고려의 옛 국토로서 발해가 서경압록부라 불렀다. 모두 신(神)·환(桓)·풍(豐)·정(正) 등 4주의 일을 감독한다. 옛 현인 신록(神鹿)·신화(神化)·기수(淇水) 등 세 군데는 모두 폐지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환주(桓州)는 고려의 중도성(中都城)이며 옛 현인 환도(桓都)·신향(神鄉)·기수(淇水) 등 세 군데는 모두 폐지하였다]고 하였다.

무릇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 훗날 그 지역을 다스렸고, 고구려는 다시 부여로부터 나왔으니, 곧 발해의 세대에 아직까지 옛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평양이 이적(李勣)에게 패하여 궁궐이며 곳간이 남김없이 불타 버리고, 게다가 공경대부며 명문 세족들은 포로로 잡혀갔기에 역사 서적 역시 재가림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인데 발해가 어떻게 그 역사를 전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해의 고왕은 바로 옛 고구려의 장수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영주(營州)로 옮겨 거처하다가 신영(蓋榮)의 난을 보고 걸사비유(乞乞比羽)와 함께 무리를 영도하여 동쪽으로 돌아오니 고구려와 말갈

의 무리들이 이에 호응하여 일어났다. 대저 이들은 옛 나라의 노련한 장수들로 마치 백제의 흑치상지와 같음이 분명하니, 생각건대 그 휘하에는 옛 나라의 신하였던 자로서 능히 고금의 일에 널리 통하는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가 망한 후로부터 고왕이 일어세기까지의 사이는 겨우 27.8년의 일이니 옛 역사가 능히 전해진 것이 없었겠는가.

또한 문장의 흐름을 보아 말하더라도 곧 신주(神州)가 마땅히 발해의 서경이 있는 압록부 땅이며, 신주(神州)나 환주(桓州) 등의 이름 또한 신시(神市)나 환검(桓檢) 등의 글자에 가까운 바가 있다. 향차 신시씨와 환검신인을 사랍들마다 모두 한 사람으로 여기더니 지금은 모든 세상이 거의 다 그렇게 여긴다. 신주에는 그에 속한 현으로 신화(神化)와 신록(神鹿) 등의 땅이 있고, 환주에는 그에 속한 현으로 또 환도(桓都)와 신향(神鄉) 및 기수(淇水) 등의 이름이 있다. 환도(桓都)는 아마도 고구려의 환도(丸都)일 것이다. '환도(丸都)'라는 이름은 《위지(魏志)》나 《북사(北史)》 등의 책에도 이미 나오는데, 곧 '환'이 '丸'의 잘못 된 표기 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발해에서는 이미 환주(桓州)와 환도(桓都)로 이름을 바로 잡아 놓았으니,

이는 아마도 오랜 옛날을 그리는 뜻에 그 근원을 두었으리라. '신향'이라 함은 곧 신시씨에게 의지하며 살던 마을이라는 뜻이 있으며, '신화'라 함은 곧 신인의 교화를 말하는 것이다. '신록'의 명칭은 더욱 기이하다. 향차 예로부터 환검(桓檢)을 일컬어 신인(神人)이라 하였으니, 곧 '神'·'桓' 등의 이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기수(淇水)는 《원일통지(元一統志)》에 패수(淇水)로 되어 있으며,



一沙權正孝 옮김

또 앞에서 서술한 '패수의 북쪽'이라는 예기와 압암리에 부합한다. 한나라 서적에 의거하면 패수와 평양을 말한 것이 자못 많으나 지금 다 말할 수는 없다. 신주·환주·신화·신록·환도·신향·패수 등의 이름은 이미 단군의 옛 일들과 많이 부합되니, 곧 단군의 두번째 도읍인 평양은 압록강의 북쪽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且《三國史記》, 高句麗琉璃王二十一年, 薛文兒王曰: 臣逐家至懸珮岩,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 鹿魚鯿之產, 王若移都, 則不惟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云云. 故明年冬十月, 王遷都國內, 則其地, 非但山水險阻, 原野開闢, 亦可知, 適於耕農矣. 夫古者建都, 必取險固富及交通之便, 今平壤 松京 蕩曠之地, 莫不皆然, 長安 洛陽, 恒爲漢土建都之地, 亦此故也. 然則, 檀君之世, 民物漸繁, 交通愈繁, 且耕農之業, 逐漸而興, 則其捨棄木之地, 而南遷於淇水之濱, 以圖後日之隆運, 蓋可想見矣.

또한 《삼국사기》의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설지(薛文)가 왕을 보고 아뢰기를 [신이 회생(繼生)인 패지를 쫓아 위나암(懸珮岩)에 이르렀더니, 그 곳은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땅은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순록과 물고기 및 자라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일 그 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 단일 백성들의 복리가 무궁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걱정 또한 면할 수 있을 것임니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槐雲 칼럼

花陰公과 岳堅山城

화음공 약견산성

槐雲 權海兆 (倭射公派, 三槐堂宗中)

고 임란에 기병하여 적을 섬멸하고 삼가 약견산에 둔병하여 크게 승리하여 조정에서 알고 유곡찰방(幽谷察訪)을 제수하고 연이어 장수, 현풍현감과 성주 목사에 제수하고, 가이만 소제 회산서원(槐山書院)에 배향(配享)제향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필자의 선친 설암문집(雪巖文集) 약견산성 고적기(古蹟記)에 보면 국사(國史) 및 야사(野史), 여러 대가(大家)의 행정(行冊) 등 기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약견산은 높고 험하여 돌이 쌓여진 봉우리가 땅에서 우뚝 솟아나 하늘에 닿으려는 기세가 있다. 압숙 장중하게 대장(大將)이 깃발과 북을 세우고 군사를 호령하는듯하고, 높고 우뚝한 지주(砥柱)가 물 가운데 버티고 서서 황하를 막고 있는 듯하다. 아래서 보면 높은 바위와 절벽이 둘러져 함준하여 올라가지 못하게 보이지만, 정상에는 넓고 평평하여 수천 명의 병마를 수용할 수가 있는 천연의 요새지다. 절벽의 허술 한 곳을 따라 돌을 쌓아 성곽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약견산성이요 그 길이가 이천여 척이나 된다.

약견산성은 신라 때 죽죽(竹竹)과 용석(龍石) 두 장군이 죽음으로 지켰으며, 조선 선조 때 경상우도 순찰사 서성(徐衡)이 그곳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를 주둔시켜 쌍충묘(雙忠廟)를 건립하여 사민(士民)을 격려하였다. 임진왜란 때 권양 공이 의병을 일으켜 형 권해 공과 이곳에 응거하여 사수했으며, 망우당이 약견산에서 불가 4-5 마장에 이르는 인접 산 금성산(錦城山) 해발 592미터)에 와서 진을 치고 힘을 합하여 적군을 토벌하였다. 특히 권해 형제는 왜군이 거창에서 가지(槲)를 넘어 고현동(古縣洞)에 주둔하여 성을 영보고 있었는데 권양 선조가 묘한 계책을 사용하여 크게 물리쳤다. 계책이란 약견산 정상에서 금성산 꼭대기와 새끼줄을 도르래로 연결하여 새끼줄에 붉은 염색을 한 장수복의 허수아비를 매달아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게 서로 당김으로서 적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달밤에는 흡사 입으로 불을 토하는 형국의 신장(神將)이 양손에 창과 칼을 들고 이산 저산으로 날라 다니는 것을 보고 적군은 무서워 낮을 잃고 다른 길로 도주 했다. 권양 형제는 이곳에서 용거하여 싸우고 지겨 이지역의 보장(保障)이 되었으니 충의(忠義)가 옛날 제(齊)나라 죽목(卽墨)과 당나라 수양(雋陽)과 견줄 것이다. 후인들은 약견산성에 올라가서 이분들을 생각하며 충의를 격려하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곽은 수원성, 위례성과 같이 200미터 정도 낮은 지형에 구축되었다. 그러나 약견산성은 서울의 남한산성과 같이 높은 고지 천예의 요새지에 구축된 성곽이다. 약견산성 성곽(城廓)은 원래 3선으로 축성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총 길이 2천 2백 척이라 하여 약 730미터쯤 된다. 성곽은 약견산 중턱과 정상 주요 접근로에 안방을 연결하



여 구축되어 있다. 기반부(基端部)는 신탁(伸琢)하고 상단부는 협축 했는데 협축 부분은 일부 도괴된 상태다. 축조수법이 조선시대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양호한 석축 높이는 평균 3미터로서 당시 선조들의 석조기술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약견산성은 1988년 8월9일 합천군 문화재 217호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유년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약견산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현대적 군사 식견을 겸비한 장군으로 전역한 지금에 생각해보니 비록 변방이긴 하지만 중요한 군사요충지다. 웅장한 약견산은 뒷면 향강(香江)이 흘러 배수진이 용이하고, 남쪽 허굴산(虛窟山: 해발 681m), 서쪽 금성산(592m)과 삼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300미터 이상 고지대 분지인 들짜는 식량조달과 보급기지로 활용이 충분하다. 6.25전쟁 때에도 1950년 7월 25일 밤 약견산과 금성산의 연결지역인 여순목 일대 고지 길목에 미군 1개 대대병력이 전자와 화포를 배치하여 북한군을 도주시킨바가 있다.

최근 약견산성 우측 하단에 합천댐이 건설되고 그 옆에 임란 창의기념관(仁亂 倡義 記念館)이 건립되었다. 기념관 건립에는 당시 합천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권해우(36대선) 촉령의 역할이 컸다. 기념관에는 임란 당시 합천 지역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110위의 순국 영령들이 모셔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400여 년 전 일본과 싸웠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한 일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권양, 권해 우리 선조들이 용감히 싸워 공적을 세웠던 약견산성이 새로 건립된 임란 창의기념관과 더불어 불후의 성역으로 가꾸어 후손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길 기대한다.

모용희의 못난 황후 아끼기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위진 남북조 시대에 모용씨라는 부족은 자기들이 세운 연(燕, 전연) 나라를 멸망시켰던 전진이 망하자 다시 연나라를 부흥시켰는데, 보통 후연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후연은 오랜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으니 모용씨가 단결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멸망하는데 이르지 말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남연과 북연, 후연이 나뉘고 서로 다투었다. 모용씨끼리 권력다툼을 한 것이다. 큰 것을 버리고 작은 이익에 집착한 셈이다.

이러한 사사로움에 매몰된 것은 그것 뿐이 아니었다. 후연에서는 황제 모용희가 들어섰는데 특히 황후 부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지 해주고자 하였다. 아마도 왕조를 책임진 황제가 왕조보다 그 황후를 더 사랑했던 것 같다.

한번은 이웃하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요동성을 함락시켰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요동성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황후 부(苻)씨와 연(燕)을 타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었다. 아끼는 황후에게 맛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싶었을 게다. 그러나 그것은 전장(戰場)에서 벌인 어처구니없는 명령이었다. 그 덕분에 고구려는 다시 방어 준비를 해서 다 함락된 요동성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 모용희는 또 황후 부씨를 위하여 승화

전(承華殿)이라는 큰 전각 짓게 하였는데, 흙을 등짐으로 져다가 산을 만들려고 하니 흙 값이 곡식 값과 같게 되었다. 나라를 팔아 황후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물론 이를 말하는 신하가 있었지만 바로 목을 베어 죽였다.

한번은 황후 부씨(苻氏)가 늦어짐에 언생선을 먹고 싶어 하였다. 요즈음에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런 것쯤이야 서민이라도 가능하지만 이 시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모용희는 언 생선을 구해 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구해 오지 못한 것은 뻔한 일, 모용희는 그 책임을 물어 관리의 목을 베었다.

하여간 모용희가 이렇게 끔찍이 아끼는 황후 부씨가 죽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제 모용희는 통곡하다가 울분으로 혼절하였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그녀를 장사지내면서는 마치 부모가 죽은 것 같이 하여 참회(斬衰)의 복장을 하고 죽을 먹었다. 모용희의 행동은 황후를 위하여 왕조를 팔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하니 그를 내 쫓으려는 사람이 있



게 마련이다. 모용희가 황후 부씨의 장례 행렬을 보내려고 궁궐을 나오게 되자 황제가 왕성을 떠난 기회를 이용하여 풍발 등이 그 무리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모용운(慕容雲)을 추대하였고 그가 천왕(天王)에 즉위하였다. 후연에 황제가 바뀐 것이다. 그런데 사실 모용운은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후연으로 들어와서 모용씨의 성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모용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용발이었다. 이들은 모용희에게 얼굴만 내밀면 반란군을 쳐부수겠다고 하였지만 겁이 난 모용희는 도랑 밑에 숨어서 오래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모용발은 일단 왕성(王城)을 다시 빼앗고 그때까지만 모용희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용희가 다시 황제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모용발은 성에 올라가 풍발 등이 거느린 군대를 향하여 거짓말을 했다. 지금 모용희가 성 아래 와 있으니 무기를 버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모용희가 이미 왔고, 또 겁이 지지 않는 군대가 뒤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자 겁이 났다. 그래서 무기를 내 던졌다.

그러나 얼마동안의 시간이 흘러도 겁쟁이 모용희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모용발의 군사를 후원하는 군대도 뒤를 이어주지 못하였다. 모용발이 혼자서 모용희를 살려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모용발의 군대는 결국 무너졌고 그도 사람들에게 살해 되었다.

한번 얼굴만 내 밟아도 많은 사람이 도왔겠지만 끝까지 숨어 있던 모용희도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 결혼 정보



소장 권경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 환영하며 성실성이것 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삼재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직책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부음

권성철 용마산업(주)회장 별세



중앙총회회 부회장으로 다년간 연 임되면서 오문 문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권성철씨(權聖哲·경교공과사직 공계 32세·용마산업(주) 회장)가 지난 6월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성품이 온화, 다정다감했던 성철은 경희대학원을 수료하고, 동대문세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위원을 거쳐 제조산업분야에 투신하여 서울 중랑구에서 환경산업인 용마산업(주)를 창립해 대표·회장으로써 새마을사업 및 동대문산업지역 발전에 공헌해, 정부로부터 다수의 표창

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동대문·중랑 총친회장·경교공과총회 장직을 다년간 맡으면서 총회 발전에 몰신양면으로 헌신했다. 지난 26일 3일장으로 많은 조문인이 참례한 가운데 영주시 선영에 안장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심순에 여사와 장남 한준씨(용마산업(주)대표)가 있다.

마포중친회 8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중친회「8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8월 22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기촌(가미술실령당)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 공덕역거리 →내상스타워(영)→공덕지구대(파출소) →우기촌(실령당)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3년 8월 1일

안동권씨 마포중친회 회장 권승구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중친회「8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